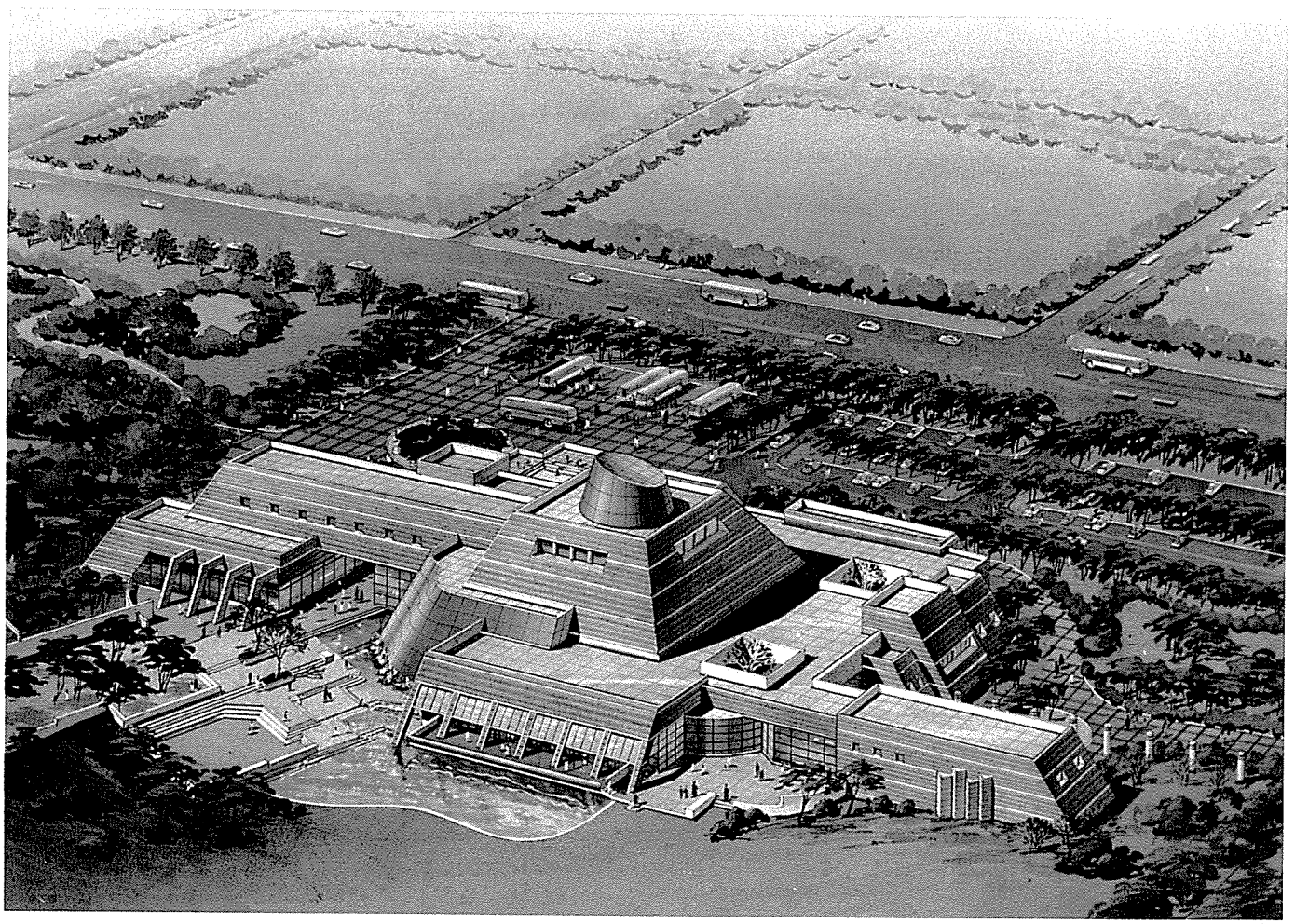
제주관광민속관

제주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도내 기존 민속관련 요소들을 통합하여 제주정통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자 전통민속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제주관광민속관 건립 현상설계를 실시했다.

이번 현상설계에는 총 4개 사무소에서 응모하여 그중 기존 사적지와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야간 관광지 개발 측면에서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한 (주)현신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됐다.

한편, 우수작으로는 금성건축안, 가작으로는 제주 석림건축안과 간건축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인 (주)현신종합건축(대표 김희수)안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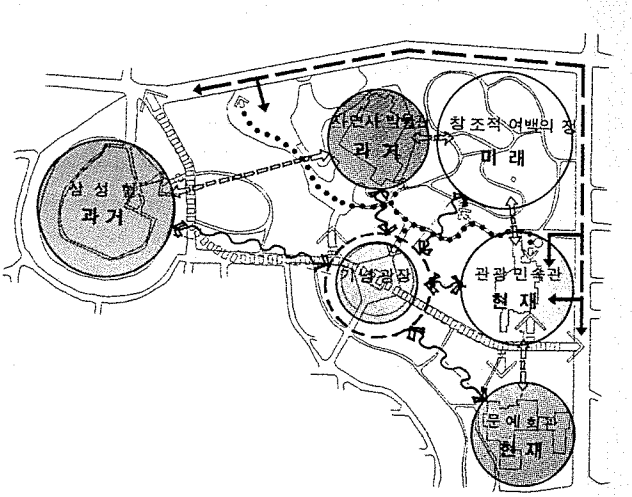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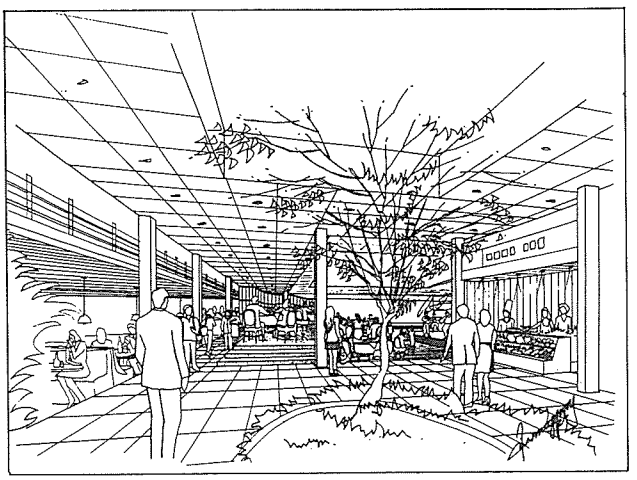
당선작

(주)현신종합건축
(대표 김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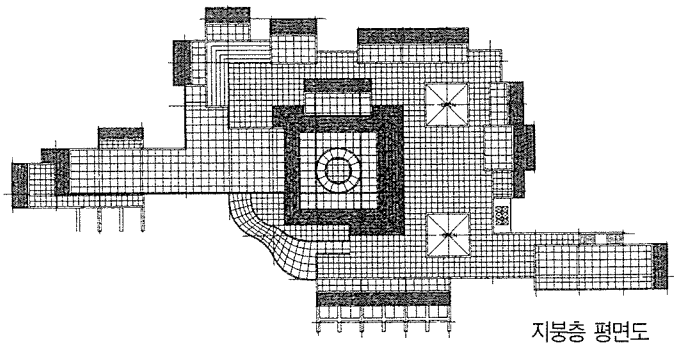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제주시 이도 1동 신산 공원내
대지면적 / 2,000평
건축면적 / 3,318.5㎡
연면적 / 4,390.5㎡
건폐율 / 50.28%
용적률 / 57.8%
주차대수 / 소형 105대 (장애자용 5대)
대형 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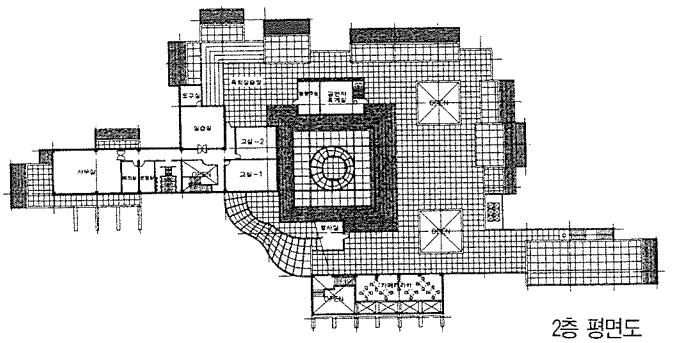
배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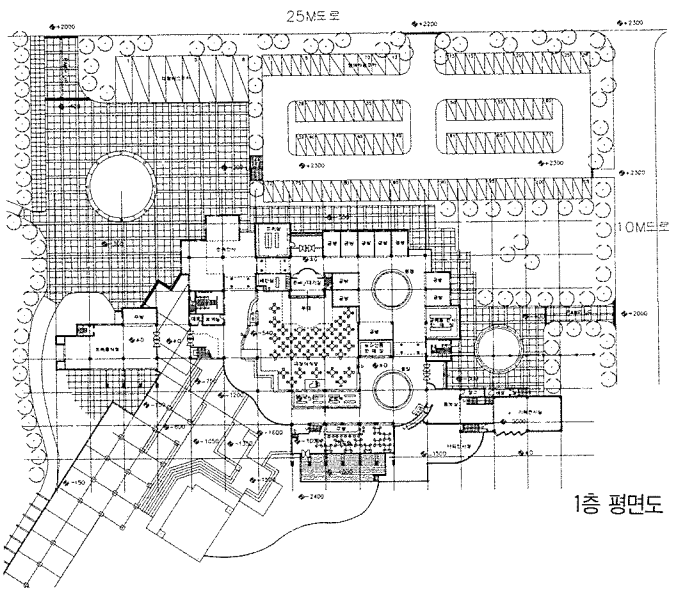
내부 투시도



지붕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계획의 전제

이 제주관광민속관 계획은 제주도내 기존 민속관련 요소들을 통합, 제주정통성을 강하게 부각시켜 원형적 모습을 보존, 확대, 전파하는 시설로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전통민속문화에 대한 관광 및 체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였다.

또한, 기존 사적지 및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야간관광지 개발측면에서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기능의 구성

제주의 전통민속공연, 민속공예, 생활, 환경문화 등을 단순전시, 소개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직접참여 또는 관심을 유발시키게끔 하여 기존의 관광일변도 개발에서 관광객, 현지인 모두가 참여하여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였다.

아울러 공익성확보 측면에서 민속공예 교육기능을 첨가, 제주전통공예의 보존과 확산을 꾀하였다.

■배치개념

1. 사적지인 삼성혈과 기존시설물인 자연사 박물관, 문예회관, 올림픽 기념광장 등과의 조화 및 연계성
- 기념광장의 상징화—조형물 주위를 화훼단지로 조성
- 기념광장을 중심축으로 공원내 기존시설물과 계획시설을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

2. 접근의 용이성
—주차장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각 방향에서 진입이 원활하도록 계획

3. 야간기능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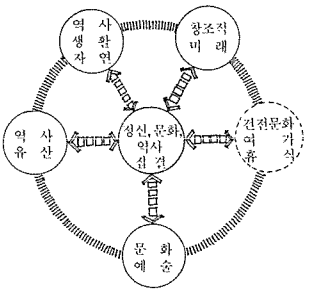
4. 각 시설물간의 영역성 및 적절한 이격거리 확보

5. 완충공간으로서의 녹지공간 형성
—도로변 주차장으로부터의 환경공해를 예방하고 계획시설의 Identity확보

6. 자연스런 가로문화공간 유도 조성—시설의 확장 개념

7. 창조적 여백의 장
—추후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런 녹지공원 계획

8. 자연 지형 지세 최대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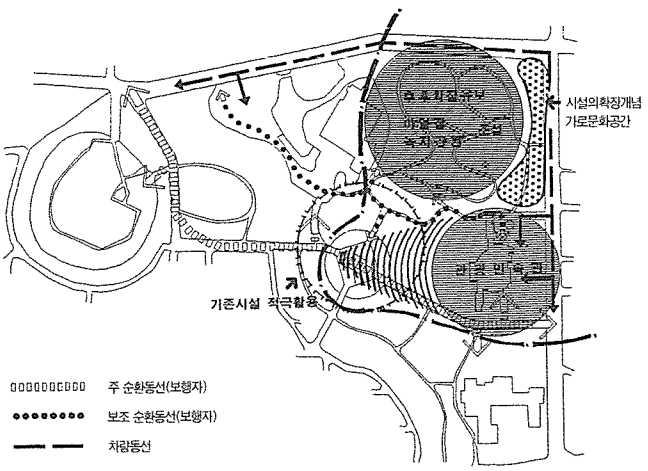
—계획대지가 갖는 성격에 부합되는 환경 창출

➡기존 시설물의 정신문화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건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유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문화활동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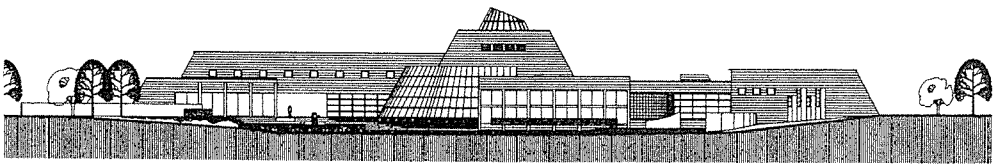
배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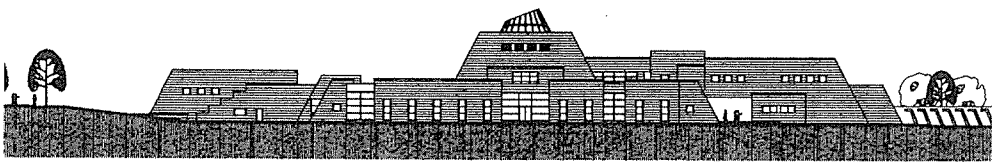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도 배치 개념도

■공간 구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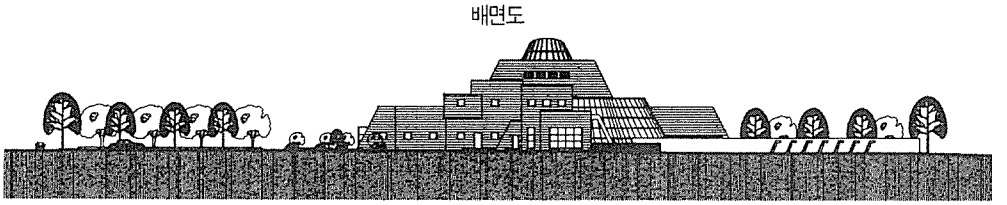
1. 공간의 진입방식에 있어서의 '올래' 개념 도입
2. 공간 구성방식에 있어서의 '안팎거리' 개념 도입
3. 'Street Mall' 개념 적극 적용
4. 각 공간의 영역성 확보
5. 각 공간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
6. 각 기능공간을 효율적으로 수평배치
7. 공간의 효율성, 경제성을 감안한 '8M' 모듈 채택
8. 부지의 고저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레벨에 의한 공간의 변화감 유도
9. 중정—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다양한 공간의 느낌 부여
10. 기능의 배부
    —1층 : 공연, 전시, 판매, 공방, 식사, 서비스 등
    —2층 : 민속교실, 카페 등
    —지하 : 기계설비부
11. 각 시설의 순환동선 및 선택동선을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이용객을 유도
12. 중정을 두어 휴게공간으로 적극 활용→Node
13. 기획전시실, 토속음식점, 커피숍 등을 Deck를 통해 내·외부의 공간적 관입시도
14. 공연시설을 중심으로 한 순환동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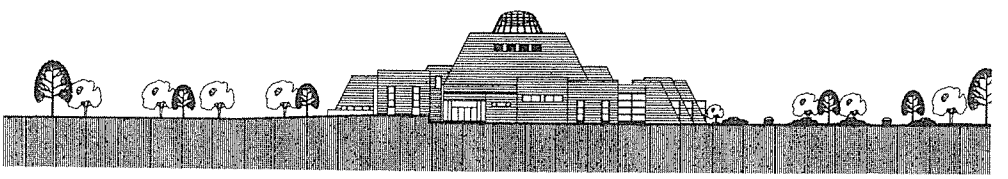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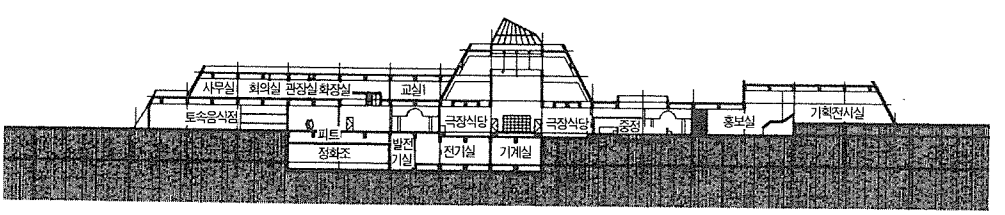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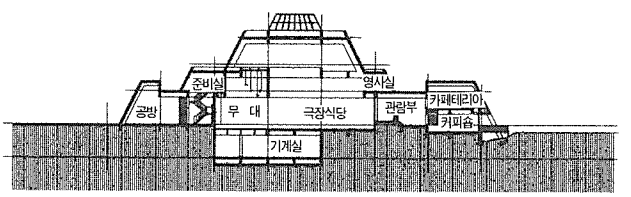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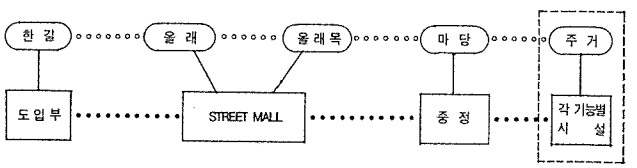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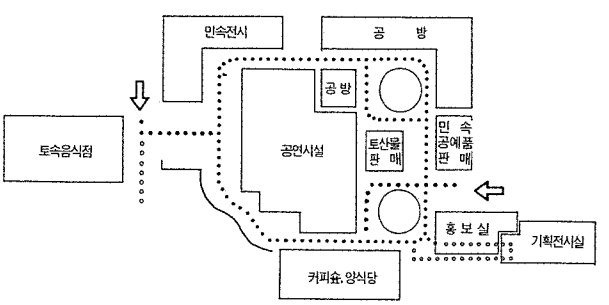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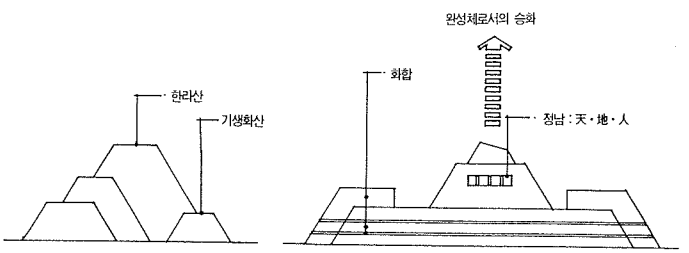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내부동선체계도

■조형 및 입면 개념